

“전통미술 발전 위해 소장품 판매액 전액 기부”

‘금초 정광주 작가 소장품’ 전, 16~21일 무등갤러리 서양화·한국화·서예 110점 광주전통미술연합회 후원

서예가 금초 정광주 작가는 40여년 전부터 서예 작품과 그림을 한 점 한 점 모았다. 언젠가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관을 열고 싶어서였다. 서예로 전시작을 한정할 경우 확장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다양한 미술 세계를 보여주자는 마음에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도 꾸준히 구입했다. 그렇게 모인 작품이 100여점을 훌쩍 넘었다.

정 작가가 소장전을 열게 된 건 지난해 창립한 ‘광주전통미술연합회’가 계기였다. 지역의 한국화, 서예, 문인화, 민화 작가 60여명이 낙후된 지역 전통미술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에서 그는 회장으로 추대됐다.

“전통미술이라는 장르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쉬워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모임을 만들었죠. 회장이 된 제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모임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놓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때 줄곧 모아온 작품들이 떠올랐어요. 집에 그냥 둘 게 아니라 좋은 데 쓰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구요.”

정 작가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몇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작품을 선보인다. 집과 작업실에 걸쳐두었던 작품까지 모두 내놓았다.

그의 ‘좋은 의도’를 접한 몇몇 사람들은 전시 전부터 작품 구입의사를 밝히는 등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전시작 중 매대된 작품 금액 전액은 구입자 명의로 광주전통미술연합회 후원금으로 입금하고, 구매자는 후원회 이사 및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정 작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전통미술연합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인



김병모 작 '장미'

전통미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광주전통미술대상’을 시상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지역 교류전, 회원 연수, 작가 발굴 지원 등의 일을 해 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문인화·한국화·서예·민화 네 개 분야 작가들이 서로 화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하고 후배작가도 키우는 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첫 번째 ‘ACC 초이스’...연극 ‘아트’ 만난다

이순재·백일섭·노주현 출연...3월 10~11일 ACC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인기 연극 ‘아트’를 오는 3월 10일(오후 7시30분), 11일(오후 2시·5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ACC 초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및 계기성에 적합한 우수 공연을 발굴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개 작품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극 ‘아트’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대표작이다. 탄탄한 구성과 통렬한 대사, 사실적 캐릭터가 압권인 작품으로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5개국에서 공연되고 있다. 폴리에르 어워드,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 이브닝 스탠다드 어워드, 토니 어워드, 뉴욕 비평

가협회 등 세계 주요 연극상을 거머쥐며 세계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극임을 증명했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 이어진 세 남자의 우정이 허영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깨지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일상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다. 인간의 이기심부터 질투, 소심한 내면까지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꽃밭배’로 불리는 유명 노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연기 관록과 연륜으로 색다른 웃음을 선보일 꽃밭배팀에 이순재, 백일섭, 노주현이 출연한다. 젊은 배우팀은 박은석, 박정복, 최재용이 맡았다. 일일정별 출연 배우는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ACC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영화 통해 다양한 사유를 나누다

‘영화 인문학 극장 3’ 3월 7일~7월 11일 동구 인문학당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

영화를 통해 다양한 사유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시 동구 인문학당이 진행하는, 영화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기획이다.

‘영화 인문학 극장 3’이 오는 3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격주 화요일(오후 7시-10시) 동구 인문학당(동명동 서석교회 주차장 옆)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 후 주제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진행은 영화 전문가 조대영(인문학당 프로그래 디렉터)씨가 맡는다.

3월 7일 첫 프로그램에서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을 감상한 후 ‘자기 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 21일에는 아녜스 바르타의 ‘방랑자’를 보고 ‘체제 밖으로 탈주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한다.

4월에는 존 휴스턴 감독의 ‘황금 눈에 비친 모

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세상의 모든 아침’을 감상하고 예술가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5월 상영작은 구로사의 기요시의 ‘도쿄 소나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남아있는 나날’, 신도 기네토 감독의 ‘벌거벗은 섬’으로 각각 가부장 이후의 삶,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시지프스의 신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이어 6월과 7월에는 창작자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는 베타 밀러 감독의 ‘카포티’,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탐구하는 미카엘 하네케의 ‘피아니스트’〈사진〉, 본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육방’을 감상한다.

모집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전화 방문 접수 및 메일(jocorman@naver.com)로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29-170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체부·도서관협회 인문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전문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도서관과 전문가를 9월부터 모집한다.

인문 강연과 탐방, 체험 프로그램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할 도서관은 27일까지, 심화 인문 강좌 ‘도서관 지혜학교’를 운영할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는 22일까지 인문사업공모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탐방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도서관 3152곳이 참여해 3만7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3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인문 전문가가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0개 프로그램이 예정됐다.

지난해까지 지역 인문대학의 추천을 받은 강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자원 한눈에

아카이브 플랫폼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오픈

광주의 다채로운 인문스토리 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공식 운영을 시작한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는 광주에 산재한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2022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는 광주 인문자원 지식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대동문화재단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광주의 인문스토리 자원을 조사 발굴 및 데이터화하고, 메타버스,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첨단 콘텐츠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홈페이지는 사업단이 발굴한 광주 인문스토리자원의 각 키워드 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아카이브한 ‘위키 라이브러리’, 체

험 및 교육용 메타버스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메타관’, 인문스토리 키워드와 연계한 VR360 영상, 숏폼 콘텐츠, 광주 옛 사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료를 볼 수 있는 ‘데이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인문스토리의 원천 소스가 될 지식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일반 시민, 창·제작자, 디지털 원어민 세대와 소통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구축해 광주만의 디지털 유산을 축적해나가고, 지역민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목표포 됐다.

홈페이지는 웹페이지 주소창에 ‘immun-story.com’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검색 시 접속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양2길3(서양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